

【특 집】

1931년의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이 상 경*

┃ 차 례 ┃

1. 머리말
2.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민족주의 담론 경쟁
3. ‘배화 사건’에 대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상반된 설명
4. ‘배화 사건’ 이후의 기록과 기억
 - 1) 재판보도에 드러난 가해자의 진술
 - 2) 사회주의자의 구조적 통찰
 - 3) 민족의식 발현의 두 가지 방향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31년 중국 만보산 지역에서 수로 개간을 둘러싸고 중국인과 조선 농민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이 빌미가 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발생한 중국인 배척 폭동인 ‘배화 사건’의 의미를 당시의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과정과 관련지어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벌인 민족주의 담론 경쟁이 만보산 지역 사건 보도에 미친 영향과 당

* 필자는 2009년 9월 식민주의와 문학 포럼이 개최한 ‘제5회 식민주의와 문학 학술회의 - ‘만주국’과 동아시아문학’에서 발표한 「만보산 사건과 배화 사건에 대한 한국 지식인의 반응」에서 ‘배화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한국지성사 속에서 규명하는 시도를 거칠게 해 보았다. 발표문에서 제기했던 생각 중, 작가들의 반응이라는 주제를 발전시켜 「一九三一年의「排華事件」と韓國文學」(『植民地文化研究』9, 東京: 植民地文化學會, 2010)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앞의 논문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민족주의 담론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전시킨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시 평양에서 ‘배화 사건’을 경험한 오기영과 김동인의 수기에서 민족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먼저 만보산 지역에서의 수로 개간을 둘러싸고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이 갈등한 ‘만보산 지역 사건’과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중국인 배척 폭동인 ‘배화 사건’은 따로 떼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화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조선일보』의 오보는 그전부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벌여온 민족주의 담론 경쟁에서 야기된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에 대한 대타의 식으로 더 강화된 담론 경쟁에서 가지게 된 『조선일보』의 조급성이 오보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다. 넷째 ‘배화 사건’에 대한 당대인의 기록은 매우 소략하고 그 교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사건 직후 씌어진 오기영의 수기는 반성적인 민족주의자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그보다 늦게 나온 김동인의 수기는 오히려 사건 당시의 민족의식의 ‘오용’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그 결과 ‘배화 사건’은 민족의식의 오용에 대해 반성할 기회가 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식민주의자 일본으로부터는 중국에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보도 통제와 의식적 외면 속에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주제어 : ‘배화 사건’, 만보산 사건, 오기영, 김동인, 민족주의 담론, 「붉은 산」, 나카니시 이노스케

1. 머리말

1931년 중국 만보산 지역에서 수로 개간을 둘러싸고 중국인과 조선 농민 사이에 분쟁이 있은 후 한국 중국 일본의 작가는 이를 소재로 작품을 썼다. 이 사건 자체와 그 이후의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하다.¹⁾ 그런데 만보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빌미가 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발생한 중국

1) 역사적 연구는 박영석, 1978, 『만보산 사건연구-일제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의』(아세아문화사)가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손승희 교수가 집중적으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손승희, 2003, 「만보산 사건과 중국공산당」 『동양사학연구』83 ; 손승희, 2007, 「만보산 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28 ; 손승희, 2007, 「지역너머의 만보산 사건(1931년)-사건을 둘러싼 실제적 외교행위 규명을 중심으로」 『인문연구』53. 관련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는 김재용 편, 2001,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역락)에 모여 있다. 중국이나 일본측 연구자의 연구도 많은데 필요한 경우 언급하겠다.

인에 대한 배척 시위와 살상 사건은 그 피해 규모나 파장이 훨씬 더 큰 것이었으나 이를 기억하거나 환기시키는 문학 작품은 아직도 없는 상태이다.

1931년 7월 2일에 중국 장춘 근처 만보산 지역에서 일어난 중 한 농민의 충돌 사건은 일본 식민지 지배의 민족적·계급적 피해자인 조선²⁾ 농민이 만주 지역으로 쫓겨 가서 논을 만들면서 현지의 중국인과 갈등하게 된 많은 사건 중 하나였다. 1931년 7월 2일의 충돌은 특별한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도 만보산에서 수로를 파던 조선 농민이 다수 중국 농민에게 맞아죽었다는 식으로 식민지 조선에 잘못 전해지면서 흥분한 조선사람들이 인천, 서울, 평양 등지의 화교들을 습격하여 100명이 넘는 중국인을 살해하고 수천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참극을 일으켰다. 이렇게 1931년 7월 초 중국과 조선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이 두 사건은 '만보산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대표되면서 그 중 '조선에서의 중국인 배척 사건'은 이후 한국 사람의 뇌리에서 지워졌다. 조선에서 일어난 중국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상은 사건 발생 당시 '조선 사건', '배화 사건', '배화 폭동', '평양 사건', '인천 사건', '중국인 배척 사건' 등으로 불리면서 만보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부수적으로 논의되고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되지도 못했다.³⁾ 이렇게 명칭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논의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두 사건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1931년 7월 2일의 충돌로 대표되는 중국 만보산 삼성보 지역에서의 조선농민과 중국인 간의 갈등을 '만보산 지역 사건'으로, 그 소식이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7월 2일 밤 인천에서 시작되어 일주일 가량 식민지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중국인 배척 폭동을 '배화 사건'

2) 1910~1945년 사이의 한반도 지역과 관련 구성원을 지칭할 때 본고에서는 식민지 조선, 또는 조선을 사용하고 특정 지역이나 시기를 넘어선 일반적 지칭으로는 한국을 사용한다.

3) 박영석 교수는 『만보산 사건연구』에서 '만보산 사건으로 인한 조선에서의 중국인 배척사건'이란 용어를 썼다. 그러나 이 모두를 포함한 연구서의 제목을 '만보산 사건연구'라 이름 붙였다.

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용된 ‘만보산 사건’이란 용어는 인용인 경우에만 사용하겠다.

1931년 이전에도 ‘배화 사건’으로 불릴 만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25년의 ‘삼시협정(三矢協定)’ 이후 중국관민은 극심하게 재만 조선농민을 탄압하고 쫓아내려 했다. 특히 1927년부터 중국 관헌이 실시한 재만 조선인에 대한 규제 조치와 배척, 그리고 구축사건이 자주 보도되었고, 1927년 12월에는 전북 이리에서 화교 상점에 대한 대규모 습격과 약탈 사건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재만동포옹호동맹’이 조직되어 위문금도 모집했다. 1928년 12월에는 조선의 각종 노동조합과 토목업자들이 조선총독부에 중국인 노동자를 제한해 조선인이나 일본인의 생활을 안정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도 있었다.⁴⁾ 그러나 이때는 사태가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하지도 않았고 식민지 조선, 중국, 일본 사이의 국제적 문제로 비화하지도 않았다. 반면 1931년 7월 초 인천 서울 평양 등지에서 벌어진 폭동은 사건의 피해 규모나 파장으로 보아 한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중국인 배척 사건의 대표성을 띤다. ‘조선 사건’이란 용어는 ‘만보산 사건’과 병렬적으로 놓일 때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현재적 상황에서 고유 명사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해 보인다. 사건과 폭동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는 사태를 평가하는 연구자의 시선이 개입하는 문제인데, 실제 형국은 ‘폭동’이라 하겠으나 그 사태를 전후 맥락 속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1931년 7월 당시, 작가들에게 수로 개척을 둘러싸고 중국 농민과 조선 농민 사이에 벌어진 ‘만보산 지역 사건’ 자체란 당시에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 이전에도 만주 지역에서는 수전 개간을 둘러싼 충돌이 자주 있었고 그밖에도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고 이미 작품화도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⁵⁾ 반면 한반도 내에서 일어났던 ‘배화 사건’

4) 자세한 내용은 이옥련, 2008,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187~191쪽 참조.

은 사건 자체의 폭력성이나 규모에서 낮설고 충격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식민지인으로서 의심없이 받아들였던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낡은 폐해를 목도하면서 ‘만보산 지역 사건’보다 훨씬 더 문제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다양한 논의를 낳게 되었다.

이 점은 ‘만보산 지역 사건’과 ‘배화 사건’ 후 조선, 일본, 중국의 작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중국과 일본의 작가는 ‘만보산 지역 사건’ 직후 이 사건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썼다. 제목도 그대로 ‘만보산’이었다.⁶⁾ 이와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작가가 ‘만보산 지역 사건’을 직접 소재로 한 작품을 쓰는 것은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 이후이다. 내선일체, 만선일여, 민족협화 등의 구호로 일제가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존재 양식을 바꾸려 했을 때 ‘만보산 지역 사건’이 소환되었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만보산 마을은 ‘만주 개척’에서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군벌, 마적과 싸워 이기고 일본의 보호 아래 안정된 농촌 마을을 건설했다고 하는 상징성, 시범성 때문에 만주시찰단의 견학 코스가 된 만보산 마을의 역사는 비로소 소설 속에 국책에 맞게 동원되거나 거기에 저항하는 소설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장혁주(張赫宙)의 『개간(開墾)』(1943)이 전자라면 이태준(李泰俊)의 「농군(農軍)」(1939. 7)은 후자의 의미를 가진다.⁷⁾ 반면 중국이나 일본의 작가는 더 이상 ‘만보산 지역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만보산 지역은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토 에이노스케(伊藤永之介)는 중일전쟁 이후 「만보산(万宝山)」을 재출간(1939.7)하면서 작품 속의 지명과 인명을 허구화시켜, 특정의 시공간을 지우고 그냥 ‘농민문학’의 중의 하나가 되게 개작을 했다고 한다.⁸⁾

5)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농 사이의 갈등을 다룬 최서해의 「홍염」(1927.1)을 들 수 있다.

6) 伊藤永之介의 「万宝山」(『改造』1931.10)과 李輝英의 『萬寶山』(上海 湖風書店, 1933)이 있다.

7)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김재용 편, 2010,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8) 오오무라 마쓰오, 2009, 「이토 에이노스케의 「만보산」과 장혁주의 『개간』」, 『‘만주국’과 동

한편 ‘배화 사건’은 당시 식민지 조선 안에서는 보도 통제로 그 실상이 상세히 보도되지는 못했다. 사망과 부상, 발생한 난민과 재산 피해의 규모를 전하는 숫자로만 보도되었고, 뒤이어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은 역사의 괄호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 관련자에 대한 공판 소식과 사건 1주년 때 짙막한 보도 기사를 제외하면 가해자였던 조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개인화된 기록물은 매우 소략하다. 일본의 프로문학 작가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가 제일 먼저 보고문을 내놓았고 당시 평양에서 이 사건을 직접 겪었던 동아일보 기자 오기영(吳基永)과 작가 김동인(金東仁)은 수기의 형식으로 이 사건의 파장을 기록해 두었다. 그러나 수기 이상의 서사물로는 창작되지 않았다. 서사물로 나아가려면 작가가 대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재배치할 수 있을 만큼 대상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시 식민지 조선의 작가의 입장에서 배화 사건은 환기하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기억이었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변전해 가는 정세 속에서 그 사건의 과거와 미래를 전망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 이 사건은 한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연구도 당시 중국인이 당했던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⁹⁾ 본의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된 조선인의 의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동아일보』와의 관계 속에서 『조선일보』가 오보를 내게 된 상황을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이 가졌던 정치 사상의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했던 연구¹⁰⁾는 1931년을 전후한 사회운동의 상황을 오해함으로써 설득

아시아문학』, 제5회 식민주의와 문학 학술회의 자료집, 83~88쪽.

9) 박영석, 앞의 책에서 기본적인 사실이 정리되었다. 아래의 논문이나 책은 중국 국민당 정부와 조선에 있던 화교의 입장, 또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 속에서 배화 사건을 정리하거나 해석한 것이다.

키쿠치 하지메(菊池一隆), 2007, 「萬寶山・朝鮮事件の 實態と 構造」, 『愛知學院大學 人間文化研究所紀要』22 ; 손승희, 2007, 「지역너머의 만보산 사건(1931년) - 사건을 둘러싼 실제적 외교행위 규명을 중심으로」, 『인문연구』53 ; 손승희, 2009, 「1931년 식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41 ; 박선영 역, 2009, 『중일문제의 진상』, 동북아연구재단.

10) 민두기, 1998, 「만보산 사건과 한국인론의 대응 - 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 『동양사학연구』

력을 가지지 못한다.

필자는 최근 연구¹¹⁾에서 그 상황을 사회주의 진영을 의식하면서 진행된 과도한 민족주의 담론 경쟁이 낳은 폐해로 본 바 있는데,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했다. 또한 문학 작품과의 관련상도 김동인의 「붉은 산」의 돌출성을 해명하는 데 집중하여 오기영이나 김동인의 수기가 표출하는 민족의식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배화 사건'을 불러내어 기억하는 첫 걸음으로 이 사건을 야기하는 데 한 몫을 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민족주의 담론 경쟁 양상을 밝히고 '배화 사건' 경험자가 남긴 진술이나 기록물을 통해 가해자로서의 반성적 자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민족주의 담론 경쟁

‘만보산 지역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는 장춘 지국장이자 특파원이던 김이삼의 송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서 부정확한 소식을 두 번씩이나 호외로 내어 ‘배화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반면, 『동아일보』는 훨씬 침착한 태도를 취하여 성망을 얻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런 서로 다른 보도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로 민두기 교수는 두 신문이 대표하는 민족주의자 내부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주목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비타협주의에 의해 동족애를 부르짖는 반면 『동아일보』는 자치론에 기반하여 일본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여 보도를 자제하였다는 것이다.

재만동포를 옹호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앞서 재만동포의 일부가 일본의 만주 침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중략...) 구조

65 ; 김태웅, 2009, 「1920·30년대 한국인 대중의 화교 인식과 국내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의 내면세계」 『역사교육』 112.

11) 李相瓊, 2010, 「一九三一年の『排華事件』と韓國文學」 『植民地文化研究』 9.

적 시각의 산물 (...중략...) 기사보도와 편집에 있어서의 단순한 이해의 폭의 넓이 또는 경쟁기업으로서의 경쟁심에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당시 한국의 민족운동자는 신간회에 대한 찬반태도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칙론적 비타협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흐름과 독립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본의 통치세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해 일정한 한도 안에서 일본측과 타협하여 자치라도 얻어내려는 자치 추진의 흐름으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바로 전자를, 『동아일보』는 후자를 대표하였다.¹²⁾

그러나 이런 민두기 교수의 논의는 우선 1927년 신간회 결성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의 상황을 1931년 7월 신간회 해소 이후의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여, 『조선일보』의 오보 사태를 해석하려는 무리를 범하고 있다. 1927년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자치론자에 맞서서 사회주의자들과 협동하여 신간회를 결성했지만, ‘배화 사건’이 일어난 1931년 7월에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사이에 대립이 심각해져서 결국 신간회가 해소된 상태이다.

또한 ‘만보산 지역 사건’ 관련 보도에서 민족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야 하는지, 일본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는 것과 구조적 시각을 가진다는 것 사이에 어떤 논리적 연관이 있는지 설명할 수 없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 신문이 1931년 7월 재만 조선인 문제에 대해 대응 자세를 달리 했다는 것인데 실상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을 결성하고 활동을 할 때부터 양쪽이 특별하게 입장의 차이를 보인 것 같지 않다. 재만 조선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이며, 재만 조선인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에 끼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입적’ 즉 중국으로 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양측이 서로 아무 이견이 없었다. 1931년 7월 ‘만보산 지역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7월 2일 밤 인천에서 배화 폭동이 발생한 것이 알려진 이후 발간한 7월 5일자 신문(7월 5일자 조간신문은 7월 4일자 석간과 한 세트이다)부터는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논조나 기사 취급 방식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폭동 발생 사

12) 민두기, 1998, 「만보산 사건과 한국언론의 대응 - 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 『동양사학연구』 65.

실과 만보산 지역에서는 사태가 정리되어간다는 사실을 함께 보도하면서 조·중·일 관계에 미묘한 부분이 있음을 들어 냉정을 유지하기를 권고하였다.

그렇다면 문제의 7월 2일의 사태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선일보』는 왜 즉각적으로 호의를 뿌리면서 사건을 키운 반면,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냉정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회주의자와의 갈등으로 신간회가 해체된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담론을 펼쳐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만보산 지역 사건’에 대해서는 1931년 6월부터 『조선』, 『동아』는 모두 그 경과를 계속 보도하고 있었다. 사실 보도는 물론이고 심층 보도도 유사하게 싣고 있다. 다만 『조선일보』가 조금 더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김이삼(金利三)을 장춘 특파원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이삼은 1920년대 중반부터 장춘에 있으면서 재만 동포 관련 기사를 서울로 보내던, 말하자면 재만동포문제 전문기자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31년 7월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는 장춘에서 김이삼이 보낸 기사가 계속 실렸다. 김이삼은 적어도 1927년 말까지는 『동아일보』 장춘지국 기자이면서 기자연맹 통신원으로 활동했고, 언제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적을 옮기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장춘에서의 김이삼은 재만 조선인 문제 전문가로서 ‘재만동포옹호동맹’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단체에 지도적인 인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¹³⁾ 오보 사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진은 훗날 회고에서 김이삼이 김좌진 피살 사건(1930.1)에 대해 당시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보내왔기 때문에 만보산 지역 사건에 대한 그의 기사를

13) 김이삼의 오보와 피살 사건을 보도한 중국측의 신문에는 김이삼을 『동아일보』소속의 기자, 장춘 지국장, 길림 특파원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송승희, 2007, 「만보산 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28). 또 사건 당시 『동아일보』 한만 국경 특파원으로 중국 안동에 있다가 장춘에 파견었던 서범석(徐範錫)은 훗날 “동아일보 장춘지국장인 김이삼이라는 사람은 또 동행한 만 사(社) 특파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紙)의 지국장까지 겸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서범석, 「동아 45년의 증언(7) - 1931년 만보산 사건」, 『동아일보』1965.4.8). 이처럼 김이삼은 상당히 오랫동안 『동아일보』와도 관련을 맺은 전문가였을 알 수 있다.

의심하지 않고 호위를 내었다고 한다.¹⁴⁾ 김기진의 회고가 아니라도, 당시의 지면을 보면 김이삼은 1931년 4월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만보산 지역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에 수시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보도기사뿐만 아니라 만보산 삼정보 지역의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경과를 설명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기획기사 「삼정보 동포 수난기」¹⁵⁾를 신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지속적으로 만보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도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유사하게 1931년 6월 24일자 신문에는 「전장 같은 만보산, 부유¹⁶⁾ 같은 400 생령(生靈) - 중국 관현의 폭압 밑에 그 장래가 불안, 창검(槍劍) 리(裏)에 안부는 여하」라고 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강계 지국 기자 오윤진이 쓴 기획 기사를 실었다. 양 신문은 서로 경쟁하듯이 관련 기사를 실어 온 것이다.

또 『조선일보』 1931년 7월3일자에는 상해특파원 홍양명이 보낸 「동포 구속문제에 대한 중국기관지의 논조 - 국민정부 기관지 『중앙일보』의 소위 진상보도와 곡해된 논조」라는 기획 기사도 실렸다. 이 기사는 중국인들이 ‘한교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중국의 『중앙일보』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다. 조선 농민들은 아직 개착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몰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측이 이를 못하게 한다고 그만 둔다면 조선인 입장에서 손실이 너무 크므로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 부대의 일본인 경관이 만보산 일대에 출동하여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터이니 한인들 때문에 중일 양국 간에 파란이 흉용(洶湧)하고 있다.¹⁷⁾

이렇게 계속 주목해 오고 있던 사건이었기에 김이삼으로부터 대규모 충돌의 소식을 받았을 때 『조선일보』측에서는 아마도 ‘드디어 터졌다’고 생각

14) 박영석, 앞의 책, 98쪽.

15) 김이삼, 「삼정보 동포 수난기」 『조선일보』, 1931.6.21.

16) 부유(浮游) : 하루살이.

17) 홍양명, 「동포 구속문제에 대한 중국기관지의 논조 - 국민정부 기관지 『중앙일보』의 소위 진상보도와 곡해된 논조」 『조선일보』, 1931.7.3.

하고 호의를 발행하는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을 것이다.

사실 민족주의 담론을 둘러싼 양측의 경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동아일보』가 ‘글장님 없애기 운동’(1928.4.1~)을 시작한다고 했으나 큰 성과가 없는 사이, 『조선일보』는 ‘귀향남녀학생 문자보급운동’(조선, 1929.7.14~)을 시작하여 학생과 대중의 호응을 받았다. 이에 질 세라 『동아일보』는 1931년 여름 ‘브나로드 운동을 통한 문맹타파와 한글보급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게다가 『동아일보』는 이 총무공 묘소 위도가 경매 당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이 총무공 유적 보존운동을 벌이면서 민족주의적 담론을 주도하는 형국이었다. 1930년 10월 3일부터 『동아일보』에 이윤재가 『성웅 이순신』을 43회 연재했고, 1931년 6월 25일부터는 이광수가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쟁 상황은 당시의 여러 기록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천도교 쪽에서 발행하던 잡지 『별건곤』에 실린 아래의 글은 이 총무공 유적 보존 운동에서 『조선일보』의 안재홍이 『동아일보』에 기선을 빼앗긴 것을 안타까워했던 상황과 『조선일보』가 ‘배화 사건’에 대해 『동아일보』에 사과 전화를 할 만큼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아일보』가 이 총무공 유적 보존에 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을 감사한 동시에 큰 성공이라 하겠으나 너무 오랫동안을 두고 신문 전 페이지를 희생하는 것은 도리어 독자로 하여금 지루한 감을 준다.

이 총무공 말이 났으니 말이지 실상 신문계에 있어서 제일 이 총무공을 숭배한 이는 새로 『조선일보』사장 되신 안재홍(安在鴻) 씨다.¹⁸⁾ 총무공의 생신날(3월 8일)이면 해마다 그의 기사와 사진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그 지면에 기재하고 그의 머리 위에는 공의 초상을 모시어 시시때때로 그를 흠모하였다. 그러나 불행히 이번엔 『동아일보』에 낙제를 하고는 그 지면까지 아주 냉정하여 겨우 보존회란 명의로 몇을 소개할 뿐이었다. 『조선일보』-특히 안 사장으로 말하면 마치 효성스러운 기출의 서자가 집 다른 영리한 양아들에게 유산과 시체까지 빼앗긴 셈이다. 그 심정을 생각하면 남모르게 총무공

18) 주필이었던 안재홍은 1931년 7월 25일, 신석우의 뒤를 이어 조선일보사의 사장에 취임했다.

의 초상 앞에서 눈물 흘렸는지도 알 수 없지.

어떤 날 오후에 따르르 따르르 하는 전령소리가 『동아일보』사장실 탁자 위에서 울었다. 이 호외자는 옆에서 엿듣는데 저편에서 어 어 소리가 자꾸 나는 것을 들으니 불문가지 안재홍 씨의 전화다. 엿듣는 사람이 자세히 들을 수는 없지만 대의를 종합하면 이번에 자기네가 호외 낸 것이 잘못되고 미안스럽다는 의미……. 옳지 『동아일보』는 월(曰) 조선 민족의 대표 기관이니까. 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하략...)¹⁹⁾

『삼천리』의 다음 기사도 마찬가지로 양 신문이 민족주의 담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순신을 거(擧)하여 정신적으로 민족적 동원을 시험하여 성공한 『동아일보』의 태도 근래에 상영(爽莖)하다. 『한말비사』까지 모집하는 거조여! 어떤 기회 어떤 조건을 이용하여서라도 민족의식을 고조함은 정당하다. 이 점만은 민중의 감사에 치(置).

(...중략...)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브나로드운동은 실패였다. 그러나 “민중 속으로!”하는 어의만은 천고의 값 가는 표어다. 『동아』의 학생 브나로드운동, 『조선』의 후주(後走)에 가까우나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이라.” 어서 전력을 다할 일. 동아계의 정치적 문화적 분포망을 각처에 칠 일.²⁰⁾

미국에서 발행되었던 『신한민보』는 좀 더 분명하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사이의 경쟁이 유혈 참극을 빚게 되었다고 통탄했다.

재래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경쟁이 많았다. 전자 안창남 비행기 사건에 큰 감정을 맺었고 또 최근 이충무공 묘소 보존 문제도 양만한 가운데 화려히 만보산 사건을 만나 큰 기회로 알고 떠들어 놓아 양국 민족 간에 대불행을 끼쳤으니, 이리로 보면 두 신문사의 경쟁이 안 씨 착오의 원인이라 한다.

19) 1931.8, 「호외의 호외」 『별건곤』제42호.

20) 「신문야화(新聞夜話)」 『삼천리』제3권 제9호(1931. 9.1).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에 냉정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성망이 한층 더 높지만 그 성망이 능히 참극의 흘린 피를 씻을 능력이 없다 하면 당초 『조선일보』와 합치를 못한 것을 뉘우칠 일이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만사가 다 이러하니 당파열에 맑은 정신을 잃어버린 자는 경연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한다. 김이삼의 사죄 성명은 왜놈의 참살을 받았으니 그는 죽어서 한국 귀신이 되리라 한다.²¹⁾

이렇게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일보』는 장춘 특파원 김이삼으로부터 ‘만보산 지역 사건’ 기사를 받았을 때 특종의 욕심과 민족주의 담론 경쟁에서의 만회를 위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호위를 발행하고 논설진도 민족주의적 감정을 격동시키는 사설을 썼던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역사 위에 더해, 1931년의 시점에서 신간회 해소로 상징되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립이 심해진 역사적 맥락을 보아야 『조선일보』 편집진의 조급성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3. ‘배화 사건’에 대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상반된 설명

『조선일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내보낸 사설의 첫 구절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제주의와 사해동포주의를 비판하면서 동포, 혈연, 동족, 동류의식, 동족애라는 용어를 구사하였다.

피는 물보다 걸(濃)다. 동포는 나의 동포이다. 국제주의가 선구자의 머리에 새벽처럼 밝아오고 사해동포주의가 선량한 사람의 가슴에 꿈같이 어리었다 하더라도 부대끼고 들볶이여 살 수 없는 사정은 그의 가장 친근한 혈연적, 동족적의 피 끓는 동류애가 아니고서는 남으로서 알 수 없는 것이다. 거

21) 거복선, 『평지 풍파를 일으킨 만보산 사건의 배경, 『조선일보』 특파원 김이삼의 사죄 = 김이삼은 유혹에서 참살로 걸과』 『신한민보』, 1931.8.20.

듣하는 수난의 속에 시달리고 넘어지려 하는 재만 100만 동포의 신상에 관하여는 누구보담도 조선 이천만 역내에 있는 대중이 가장 큰 동류의식과 연대적 책무감과 또는 상호부조적 정열 의지 및 정책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략...) 동족애에 쟁기는 조선인 대중이여! 그 이에 감(感)함이 없는가? 그의 대책은 절무(絶無)요, 그의 생존권 옹호의 인도적 대의는 드디어 단념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²²⁾

사설의 이 대목이 겨냥하는 바는 우선 사회주의 진영이다. ‘만보산 지역 사건’ 당시 『조선일보』주필이었던 안재홍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서 일찍이 자치운동에 맞서면서 사회주의 세력과의 협동전선인 신간회 창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주도 세력이었던 『조선일보』 측 사람들은 중간에 신간회의 관련 직책을 사임하고 신간회가 우경화되면서 1930년부터 사회주의자들은 해소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안재홍은 자신이 주장하는 ‘좌익 민족주의’ 혹은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우경 타협-자치 운동의 경향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의식적 중앙세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국제주의 계급노선에 더 크게 차별성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²³⁾ 그리고 만보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협동체인 신간회가 해소된 지(1931.5.16) 얼마 안 된 7월 초였다.

사회주의와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대중에게 민족주의 담론을 더 열심히 내세우고자 했고 결국 『조선일보』는 오보를 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곧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섰다. 7월 7일 평양의 14개 단체가 낸 「급고문」과 7월 8일 서울의 각 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민족주의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각 단체협의회회의 의장은 『조선일보』의 안재홍이고 여기서 낸 「성명서」의 기초를 잡은 사람은 『동아일보』의 이

22) 「사설-통심(痛心)할 재만동포의 운명-면밀을 요하는 옹호 대책」, 『조선일보』, 1931.7.4.

23) 김인식, 2009, 「안재홍의 좌익의 개념 규정과 이념정향의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49.

광수였다.

이런 움직임에 후속해서 신문 잡지에는 재만 조선동포 문제 해결책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다. 수양동우회의 기관지 격으로 주요한이 주재했던 『동광』 1931년 8월호는 '내가 본 재만동포문제 해결책' 특집을 기획했는데 큰 줄거리는 '만보산 지역 사건' 같은 것은 조선 농민과 중국 농민 사이에서 발생한 민족 문제가 아니라 중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의 외교문제이며, 해결책은 '입적', 즉 재만 조선인이 중국에 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잡지에 실린 「참변과 재만동포문제」는 이 사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중의 행동은 상례를 벗어나기 쉽다는 것, 민족적 감정은 맹목적이 되기 쉽다는 것은 1927년의 중국인 박해 사건 때에 벌써 경험한 것이다. (...중략...) 깊이 인식할 여유가 없는 맹목적 군중이매 (...중략...)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 도 계급이 과거에 있어서 또는 사건 당시에 있어서 지도적 임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증거라고 한다.

조선 사람은 일본 만몽정책의 선구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축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 국적을 떠나 중국에 입적만 하면 이 애매한 죄명은 벗을 것이 아니다. 이 논리는 의무성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조선에 국적법을 적용하기를 주저하는 가닭은 무엇인가. 일본 인민이 미국에 가서 입적해서 미국 사람 되는 것은 용인하면서 조선 사람이 중국 시민 되는 것은 왜 용인하지 않는가. 불가사의한 일이다. 재만동포문제의 해결은 우선 예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⁴⁾

이런 민족주의 진영의 진단과 해결책에 대해 사회주의 진영은 '배화 사건'은 민족주의 측이 조선 농민이 겪는 고통을 지주-소작인과 같은 계급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고 중국인(만인)-조선인(한인)이라는 민족의 문제로 대중들에게 설명해 온 것이 자초한 사태라고 설명했다. 송봉우가 주재한 『비판』

24) 1931.8, 「참변과 재만동포문제」 『동광』24. 이 글은 '시화(時話)'라는 형식으로 무기명으로 실렸는데 보통 잡지 관계자가 쓰는 것으로 미루어 주요한의 글이 아닐까 한다.

1931년 9월호에 실린 연봉촌인(蓮峰村人)의 「비판의 비판」은 ‘배화 사건’에 대한 민족주의자의 설명이 가진 모순을 꼬집는 글이다.

(…중략…)당신들의 논법에 의한다면, 이번에 소동한 군중들은 아무 의사 판별의 의식도 없이 한갓 천연 우연적인 불상사만 야기한 상심병(傷心病)광(狂)의 무리밖에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한갓 똑똑한 의사만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화복(禍福)보다도 멀리 만주들에서 온갖 박해를 받는다는 동족애에 넘치는 의분심에서 희생적으로 일어났던 군중적 행동이다.²⁵⁾

‘배화 사건’은 그동안 쌓이게 된 ‘동족애’가 필연적으로 중국인을 향해서 터진 것이며, 줄곧 민족 단결을 운위한 자들이 지금 와서 폭동은 민족‘일부’의 무지한 행동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민중을 무시하는 오만한 언사이며, 일관성 없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런 촌평 같은 것 말고 사회주의 측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배화 사건’을 논의한 글은 잘 안 보인다. 실상 『비판』은 1931년 7·8월 합본호를 8월 초에 발간하면서 ‘재만동포문제 특집’을 기획했으나 검열에 걸려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압수된 글들 중에 좀 더 분석적인 글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마침 이때 검열에 걸렸던 원고 중 하나가 예의 『동광』 9월호에 재수록되어 그 내용을 짐작하게 해준다. ‘재만동포문제 특집’에 실린 일본의 좌익평론가 하세가와 만찌료(長谷川萬次郎)의 「민족적 대립과 만선 사건」 초역이 그것이다.

지나(支那)의 국민운동은 외국 자본주의적 세(勢)에서 해방되려는 운동이 지마는 결코 그 자체의 자본주의 세력에서 해방되려는 운동은 아니다. 자체의 자본주의 세력에서의 해방이 아닌 이상 외국의 자본주의 세력에서 해방 되겠다는 것도 불가능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나 하면 민족국가의 자본주의적 대립은 전혀 개개의 자본가의 대립과 마찬가지로 결국 최고 자

25) 연봉촌인, 1931.9, 「비판의 비판 - 선한인(鮮漢人)간(間) 불상사(不祥事)의 여음(餘音)에 관한 이삼(二三)의 소평(小評)」 『비판』5.

본국의 세력에 통일되는 성질의 것인 까닭이다.²⁶⁾

겉으로 민족적으로 보이는 문제도 결국은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한 자본가의 경쟁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측의 이러한 비판은 당시의 재만 조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한 대안을 내어 놓기 어렵게 만들었고, 사회주의 진영은 ‘배화 사건’을 수습하려 전면에 나서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계급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족주의’ 비판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4. ‘배화 사건’ 이후의 기록과 기억

중국인 100명이 넘게 살해당한 평양에서의 참극은 그 실상이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다. 사건 1주년이 되는 날도 「평양사건 1주년 208명 복역 중, 정상 보아 가출옥도 시켜, 희생자 위령제 거행」이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일제 당국의 보도 통제가 주 원인이었을 것이다.

참극의 실상은 폭동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간 일본 작가 나카니시 이노스케의 르포, 중국으로 돌아간 화교의 구술 기록, 그리고 1931년 7월 당시 동아일보 평양 지국 기자였던 오기영과 평양에서 살고 있었던 김동인의 수기로 전해진다. 그 중 나카니시의 르포는 중국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의 강요된 경쟁 관계 속에서 비극이 발생했다고 하는 구조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오기영의 경우는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취했던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민족의식의 오용’을 통탄했다. 제일 문제적인 글은 김동인의 것이다. 이미 중견 작가였던 김동인은 ‘배화 사건’ 이후,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 등을 모두 목도한 뒤에 쓰면서도 사태의 겉만을 훑고 있다. 수기의 내

26) 長谷川萬次郎, 1931.9, 「민족적 대립과 만선사건 - 재만동포문제특집」 『동광』25. 이 글 끝 부분에 “『비판』 7·8월호에 실린 것”이라는 부기가 있다.

용으로 보면 김동인 자신 가해자 속에 휩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런 자신의 위치에 대한 특별한 반성적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순사와 기마경관 소방대원들이 중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는 노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순간 김동인은 맹목적 민족감정에 휩쓸려 있었던 것 같다.

1) 재판보도에 드러난 가해자의 진술

실제 배화 사건 가담자들의 행태나 동기를 알려주는 1차 자료는 거의 없다. 인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신문 조서는 공개되어 있지만,²⁷⁾ 훨씬 많은 중국인이 살해당한 평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 자료는 현재 찾을 수 없다. 다만 그 재판을 전하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가해자의 면모를 일부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하나는 중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재판에 대한 보도기사이다. 이들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중국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평양) 작보 계속= 강동군 만달면 대성리에서 중국인 1명을 살해한 범인 김련식, 정광선, 고원규 3명은 심리를 마친 다음 입회한 □□ 검사로부터 장시간 준렬한 논고를 한 후 3명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하였다. 피고 3명은 모두 경악과 공포로써 얼굴이 해쓱하여지고 무더운 바람에 놀리운 범정은 갑작한 찬 공기가 휩쓰는 듯하였다. 피고들은 7월7일 오후 8시경 동리 중국인 등흥화(37)를 톱으로 다리를 썰고 돌과 곤봉으로 쳐죽인 것으로 재판정에서 시인하였다. 그들의 공술에 의하면 피살된 중국인은 죽기까지 아무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판결 언도는 25일이라 한다.²⁸⁾

그런데 똑같이 이 재판을 보도한 중국측의 신문은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위의 『동아일보』 기사와 같은 내용을 전한 뒤, 범행 동기 및 사건 이후의

27)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56 - 중국인 습격 사건 재판 기록』.

28) 『평양 사건 공판 제1일, 3명에게겐 사형 구형, 강동 대성리에서 발생한 사실, 주목되는 25일 판결』 『동아일보』, 1931.8.20.

그들의 심경을 덧붙여 놓았다.

범행 동기는 피고의 공술에 의하면 이러했다. 7월1일 평양 시내의 각 신문에 만주지방의 한교 200명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게재되었음을 봤을 때 피고의 사촌형 및 친척 모두 만주로 이주하였고 그 주거지가 장춘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필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판단해 크게 흥분하였다. 대성리로 돌아와 바로 경찰서에 관련 사실의 확인을 문의한 결과 선교의 피살 소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서 범행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범인 모두는 현재 자신들이 이용 당한 후 일본인에 의해 심판받는 데에 대해 극히 불만을 느끼고 감옥 내에서 여러 차례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²⁹⁾

식민지 조선에서 발간되는 신문에는 그들의 엽기적인 살해 방법만 소개되고 그 동기에 대한 보도는 차단되어 있다. 손승희 교수는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위의 기사를 근거로 평양이 상대적으로 만주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에 폭동이 커질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했다. 피고들이 사실을 경찰서에 확인했다든지 일본인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발언이겠지만 일본의 책임을 묻는 대목이기에 국내 신문에는 실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측에서는 더 강조해서 신문에 실은 것으로 생각된다.

평양 사건에서 무려 20명을 살상해서 우두머리(首犯)로 지칭된 인물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평소에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평을 발산한 것으로 그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 7월 폭동 때 중국인 20명을 살상한³⁰⁾ 범인 장봉진(27)은 16일 고도(高島) 예심판사의 손에서 살인, 살인 미수, 소요, 건조물 손괴 등 유죄의 결정을 지어 평양지방법원 합의부 공판에 회부되었다. 예심종결서에 의하면

29) 「平壤暴動之首犯之供詞」 『中央日報』, 1931.8.20. ; 손승희, 2009, 「1931년 식민지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에서 재인용.

30) 처음에는 장봉진이 중국인 30명을 때려죽였다고 나오나, 최종적으로는 7명을 죽이고 13명을 살인미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는 7월5일 밤 곤봉을 들고 군중 속에 싸여 폭동에 가담하고 중국인 9명을 박살하고 11명을 중상케 하여 살인미수를 하였다 한다. 피고는 대동군 재경리면 상석리 출생으로 어릴 때 양친을 사별하고 12세 때에 평양에 들어와 걸인 노릇을 하다가 나이 들면서 뽕 장사, 일본 나막신 장사 등을 하던 사람으로 아무 교양도 없음은 물론 항상 세상에 대한 불평이 7월 폭동에 피를 보배 그는 잔인한 통쾌에 취하여 함부로 날뛰 것이라 한다.³¹⁾

‘배화 사건’은 1931년 7월 초 인천, 서울, 평양, 부산 등 중요 도시에서는 다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 평양이 제일 심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참혹한 살상극을 한 개인의 특별한 성향으로 문제를 축소시켰다. 이 축소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할 일본의 의도일 것이고, 기사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든가 각종 통제를 넘어서서 문제를 드러내 보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이후 이 사건은 더 이상 아무도 드러내어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2) 사회주의자의 구조적 통찰

나카니시 이노스케는 1931년 7월 4일 중국 대련(大連)에 있다가 만보산에서는 일본 군대에 출동을 요청했고 조선 인천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인이 충돌했다는 호위를 보고 그날 밤, ‘분노한 꼬레아’를 보기 위해 배를 탔다. 7월 5일 이후의 평양의 폭동을 목격하고 르포를 썼다. 글의 말미에 ‘1931년 7월 11일 조선’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나카니시는 흰 옷 대신 카키색 노동복을 입은 사람들, 대동강 연안에 늘어진 큰 공장, 매연, 소음,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구해 나오는 사람들, 1시간 동안 행상인이 12명이나 들이 대는 길거리 등으로 실업자가 넘쳐나는 평양의 풍경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일본에 가도 일자리가 없고 중국에 가도 중국 농민과 충돌하며 고생하는 형국

31) 『중국인 20명 살상자 종예(終殲), 어릴 때부터 갖은 고생, 피 보고 눈뜬 악마성』 『동아일보』, 1931.12.19.

이니, '배화 사건'이 만보산 지역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호외 탓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중국인 노동자와 경쟁하도록 내몰린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구조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이다. 이어서 나가니시는 평양에서 발생한 배화 폭동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스케치 했다.

(5일-인용자) 저녁 무렵 밥을 먹고 있는데 기마 순사가 말발굽 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달려왔다.

얼마 있다가 큰 길에서 “와” 하는 함성이 울렸다.

‘드디어 왔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옛날부터 평양 사람은 날썬 동작과 거친 성격으로 이름이 나 있다. 안중근을 비롯하여 많은 자객이 이 지방에서 나왔다. 경성, 인천의 소요에 자극 받은 다혈질의 평양사람은 하룻밤에 100리를 뛰어 다니며 이 거리에서 중국인을 증오(이 잘못된 증오!)하는 소리를 높였다.

나는 한길로 나갔다. 군중으로 짝 찼다. 동경의 메이데이 시위처럼, 아니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굉장하게 살기를 품은 대중이 무리를 지어 성안의 구 시가지 쪽으로 몰려갔다.

토, 툭, 토, 툭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속해서 우리가 깨져 내리는 소리. 툭 하고 흠뻑지가 일어난다. 환성을 뚫고 비명 소리가 들린다. 옷이 찢어진 채로 군중의 옷자락 밑으로 빠져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

나는 길모퉁이 어두운 곳에서 이 무의미한, 정말로 잘못된 양 민족의 투쟁을 바라보았다.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양 민족이다.

다음날은 병사가 무장하고 말을 탄 그림을 그린 포스터가 동네 곳곳에 붙었다. 그 병사가 오늘부터 출동하여 경계한다고 쓰여 있었다. 빨간 모자를 쓴 옛날 근위사단 병사 같은 순사가 총을 차고 트럭에 타고 돌아다녔다. 병사가 길목에 보초를 섰다. 총독부에서 유고(諭告)가 나왔다.

파출소에는 포박된 조선인이 무장순사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의 양손에 걸려 있는 굵은 포승과 순사의 빨간 모자가 소요가 끝난 거리의 공기를 만 들어 내고 있다. 시의 공직자가 파괴된 집의 뒤처리에 경찰관, 청년단, 재향군인단원 등과 협력하고 있다.

온 시내에는 유언비어의 재즈가 울려 퍼지고 있다. 7월6일이였다.³²⁾

조선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가 경쟁에 내몰린 가운데 일어난 싸움을 ‘무의미한’, ‘잘못된’ 양 민족의 투쟁이라고 하는 나카니시의 시선은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것이다. 나카니시는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평양 사람의 기질 - 다혈질 - 이 그런 심각한 폭력 사태를 낳았다고 보았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당시도 그 이후의 연구자도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인 바 없지만 평양과 만주와의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평양이 가진 역사적 전통과 관련해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다음에 살펴볼 오기영이나 김동인의 수기와 비교하여 좀 더 사태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그가 일본인으로 일본의 잡지에 발표한 글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처지에서 썼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민족의식 발현의 두 가지 방향

‘배화 사건’에서 ‘민족의식의 오용’을 반성하는 오기영의 글은 사건의 당사자가 제일 먼저 쓴 보고문학이다. 동아일보 평양 지국 기자로 있으면서 사건을 직접 겪었고, 그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 쓴 것으로, 총독부의 보도 통제가 풀리고 진상조사가 발표되고 여러 가지 수습책이 제시되는 와중인 1931년 9월 초에 발표되었다. 『동광』 1931년 9월호의 ‘재만동포문제 특집’에 중국 정부 측, 일본 정부 측, 일본의 사회주의자의 논문과 함께 ‘배화 사건’을 직접 겪은 조선 사람의 수기를 실은 것이다.

7월 5일 밤. 그 밤은 진실로 무서운 밤이었었다. 역사로써 자랑삼는 평양에 기록이 있는 이래로 이런 참극은 처음이라 할 것이다. 미(美)의 도(都), 평양은 완전히 피에 물들었었다.

하기는 우리가 인류사를 뒤져서 문야³³⁾의 별(別)이 없이 피 다른 민족의 학살극을 얼마든지 집어낼 수가 있다. 그러나 유아와 부녀의 박살 시체가

32)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1931.8, 「滿州に漂泊する朝鮮人」 『改造』; 나카니시는 만보산 지역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万宝山事件と鮮農」 『中央公論』(1931.8)도 동시에 발표했다.

33) 문야(文野): 문명파 야만.

시중에 산재한 일이 있었던가!

나는 그날 밤 발밑에 질척거리는 피와 횡재(橫在)한 시체를 뛰어 넘어 민족의식의 오용을 곡(哭)하던 그 기억을 되풀이하여(내, 비록 늙어 망녕이 들려도 이 기억은 분명하리라) 검열관의 가위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면서 거두절미의 회고록을 독자 앞에 공개한다.³⁴⁾

오기영은 ‘배화 사건’을 ‘피 다른 민족의 학살극’, ‘민족의식의 오용’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오기영은 당시 수양동우회 회원으로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배재고보를 마치고 1928년에 『동아일보』 평양지국 사회부 기자로 입사한 뒤 1929년에 평양에서 수양동우회에 입단했다. 1937년의 동우회 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뒤 1938년 초 도산 안창호의 임종을 지킨 인물이다.³⁵⁾

오기영은 집은 조선인의 것이니까 부수지 말자는 말에 군중이 정말 집은 놔두고 그 안의 가장 짐물만 깡그리 부수고 떠나는 것, 중국인은 전혀 반항하지 않는데도 조선인은 엄청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꼬집으면서 조선인들의 군중심리를 “군중은 반항 없는 약자에게 용감하였던 것이다.”라고 개탄하고 있다. 유아와 그 아이를 안은 여성의 참혹한 죽음을 거듭 강조한 데는 맹목적으로 ‘민족의식’에 휩쓸린 조선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깔려 있다.

민족주의자였던 오기영이 민족의식의 오용을 통절하게 반성을 하는 동안, 그 이전 민족주의 같은 것과는 별 관련이 없던 김동인은 ‘배화 사건’을 통해 새삼스럽게 민족 의식이란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인도 당시 평양에 살면서 ‘배화 사건’을 현장에서 겪었고 3년 후에 그 경험을 회고하는 수기를 발표했다. 집필 동기에 대해 당시 보도 통제가 심했고 또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폭동군과 호사객’ 외에는 목도한 사

34) 오기영, 1931.9, 『평양폭동사건 회고』(수기), 『동광』25.

35) 『동진 오기영 연보』, 오기영, 2002, 『사슬이 풀린 뒤』, 성균관대 출판부(1948년 출간된 것을 성균관대 출판부에서 재출간), 201~207쪽.

람이 없어 진상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을 문제로 생각해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수기를 통해서 보면 김동인은 처음에는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나중에는 군중에 휩쓸려 폭동에 일부 가담했다. 자신이 ‘폭동군과 호사객’을 겪었던 것이다. 김동인에게 ‘배화 사건’은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진기한 광경”, “기괴한 광경”이었다. 진기한 광경이란 군중이 길에 비단과 포목필을 가로 세로 엮어서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무릎까지 쌓인 비단길을 걸었다는 것, 전기줄에 비단이 걸려 날리는 것이 마치 의식을 준비하는 군함의 화려한 장식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기괴한 광경은 갓난 아기의 시체를 인형으로 착각할 뻔했다는 것이다.

오기영은 통곡을 하는데 김동인은 구경을 했다.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김동인 자신 군중심리에 휩쓸린다. 중국인 상점에서 끌어낸 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신없이 찢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동인의 가족들은 모여 앉아 그날의 전리품을 자랑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집으로 돌아와 보매, 집에는 아이들이며 아이들을 찾으러 나갔던 사람이 모두 돌아와서, 오늘밤 견문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에 꽃이 한창 피었다. (...중략...) 순사들이 경계하고 있어서 손을 부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며, 중국인 잡화무역상을 파괴하는 데서 주위 왔노라고 「安住のみ取紛」 두 통을 자랑하며 곁하여, 어떤 사람들은 큰 보통이로 물건들을 싸가지고 지고 가더라는 이야기를 한다.³⁶⁾

이렇게 밤을 보내고 김동인은 아침이 되자 다시 구경하러 나갔다가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다. 여자와 갓난아이의 시체였다.

그 집 뒷마루에 중국 여인의 시체가 하나 엎드려 있었다. (...중략...) 그러

36) 琴童(김동인), 「유서 광풍에 춤추는 대동강의 악몽-3년 전 조중인 사변의 회고」 『개벽』 신간 2호(1934.12).

고 그 곁에는-나는 그것이 영아시(嬰兒屍)인지 혹은 셀로이드 인형인지를 지금도 모른다. 만약 그것이 영아라면 생후 3, 4개월 밖에는 안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분홍빛이 도는 점으로 보아서 혹은 인형인 듯싶기도 하지만, 벌거벗은 그 물체의 국부(그것은 계집애였다)까지 똑똑히 조각된 점으로 보아서 인형으로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잠시 허리를 구부리고 그것을 굽어 보았다. 무엇인지 정체를 밝혀보려는 호기심으로, 손가락으로 만져보고도 싶었지만, 만약 그것이 영아시이면, 이 후에 손가락에 감할 불쾌한 추억 때문에 만져 보지도 못하고 그냥 굽어보고만 있었다.³⁷⁾

이 글은 시체에 대한 엽기적인 묘사로 해서 그 참혹함을 잊게 한다. 그리고 이런 묘사를 통해서는 갓난아기까지 죽인 인간들에 대한 성찰이 따르기 어렵다. 김동인은 이런 묘사를 왜 했을까. 여기에는 피해자인 중국인에 대한 미안함도, 죽은 사람에 대한 연민도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성도 없다. '호기심'을 가진 '호사객'으로 진기한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상황에 대해 오기영이 쓴 것과 비교해 보자.

죽은 어린애를 죽은 줄도 모르고 힘껏 불안은 채 경찰서로 도망해 와서 비로소 내자(乃子)의 시체 되었음을 발견하는 모성…… 젓 빠는 어린애를 껴안은 채 부축되어 서(署)로 와서 땅 바닥에 뉘이자 숨이 넘는 모성. 시내 는 완전히 × × × 상태다.

(…중략…) 고사리 같은 두 주먹을 예쁘장스럽게 쥔 채 두 눈을 말뚱말뚱 뜨고 땅바닥에 엎어져 있던 영아의 시체!³⁸⁾

엄마가 아기의 죽음조차 몰랐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을 만든 것이 동족이라는 것, 아무 것도 모르는 아기까지 죽였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정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더 슬프고 더 참혹한 정경이 그려지지 않는다.

37) 김동인, 1934.12, 위의 글.

38) 오기영, 1931.9, 『평양폭동사건 회고』(수기), 『동광』25.

이처럼 김동인의 수기에서는 민족의식의 오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든지 가해자로서의 미안함 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동인 자신 ‘균중심리의 놀라운 힘’이라고 직접 쓰고 있거니와 중국인과 조선인의 대립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중국인을 배척하지 말라는 호소가 안팎에서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배화 사건’ 경험 얼마 뒤에 쓴 「붉은 산」(1932.4)에서 김동인은 소설 내적 맥락 없이 중국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붉은 산과 흰 옷’으로 민족적 정서를 자극한다. 김동인의 작품세계 전체에서 보면 극히 예외적인 이 소설은 김동인이 ‘배화 사건’에서 경험한 맹목적인 민족의식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³⁹⁾

‘배화 사건’으로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그때까지 맹목적으로 강조해오던 ‘민족의식’에 대해 조금이라도 경계심을 품게 된 반면, 김동인은 ‘배화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민족의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셈이지만 그나마 가해자의 일방적인 것이었다. 유사하게 반성 없는 모습은 「붉은 산」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된 이무영의 소설 「두 훈시」(1932.5)에도 나타난다. 가해자로서의 반성이 없는 민족의식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보여주는 한 예이다. 서울의 가난한 젊은이가 책을 팔아서 연명하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었지자 호떡집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내용이다. 소설에서 그래도 배운 계층이었다고 설정되는 청년이 다른 곳이 아닌 호떡집에서 무전취식을 할 용기를 낸 것은 ‘배화 사건’으로 중국인들이 주눅 들어 있으리라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옳지!” 하고 상철은 무릎을 쳤다.

“요새는 만보산(萬寶山) 사건⁴⁰⁾으로 놈들이 쥐어 지내는 판이다. 한 개만 더 먹고 모자를 내 주지. 안 받으면? …… 뱃심이다.”

“뜨듯한 놈으로 하나 더 주!”

39) 김동인의 소설 「붉은 산」에 대해서는 李相瓊, 2010, 「一九三一年の「排華事件」と韓國文學」, 『植民地文化研究』7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40) 문맥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에서 일어난 ‘배화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상철은 용단을 낸 것이다.⁴¹⁾

그러나 중국인은 만만하지 않아서 경찰에 잡혀가게 된다. 소설은 상철이 유치장에서 구류를 살면서 지도자를 만나 계급의식을 깨우치고 나온다는 습작 수준의 작품인데, '배화 사건'을 반성하기는커녕 그것을 기회로 오히려 중국인에게 더 의기양양하게 구는 민족의식의 오용을 볼 수 있다. 소설에는 이러한 주인공에 대해 특별한 비판적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작가인 이무영도 '배화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작가가 이러니, '배화 사건'은 일제의 통제와, 가해자였던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의도적인 무시나 무관심으로 해서 기억되지 못하고 지워진 것이다. 오기영도 이 글 이후에는 일절 '배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해방 뒤인 1948년 검열과 관계없이 쓴 수기 『사슬이 풀린 뒤』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기영은 다음과 같이 스쳐 지나갈 뿐이다.

삼년 전 청요릿집에서 헤어진 뒤의 우리 형제는 오늘 기이하게 만난 것을 즐기면서 술을 나누었다. 상해이야기, 남경이야기, 광주학생사건이야기, 특히 만보산 사건이 빌미가 되어 그때 한창 평양을 뒤집어 놓은 중국인 살해사건 이야기…….⁴²⁾

5. 맺음말

이상에서 1931년의 '배화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의 관련상을 살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혀 보았다. 첫째 만보산 지역에서의 수로 개간을 둘러싼 갈등한 '만보산 지역 사건'과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중국인 배척 폭

41) 이무영, 1932.5, 「두 훈시」 『동광』제33호.

42) 오기영, 2002, 앞의 책, 71쪽.

동인 ‘배화 사건’은 따로 떼어서 논의할 때 그 성격이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둘째 ‘배화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조선일보』의 오보는 그전부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벌여온 민족주의 담론 경쟁에서 야기된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에 대한 대타의식으로 더 강화된 민족주의 담론 경쟁에서 가지게 된 『조선일보』의 조급성이 오보를 낳은 결정적인 원인이다. 넷째 ‘배화 사건’에 대한 당대인의 기록은 매우 소략하고 그 교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사건 직후 씌어진 오기영의 수기는 반성적인 민족주의자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그보다 늦게 나온 김동인의 수기는 오히려 사건 당시의 민족의식의 ‘오용’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넷째 ‘배화 사건’에 대한 당대인의 기록은 매우 소략하고 그 교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배화 사건’은 민족의식의 오용에 대해 반성할 기회가 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었고 식민주의자 일본으로서는 중국에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보도 통제와 의식적 외면 속에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한 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배화 사건’을 불러내어 그 의미와 파장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 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사설 - 통심(痛心)할 재만동포의 운명 - 면밀을 요하는 옹호 대책」 『조선일보』, 1931. 7.4.
- 「신문야화(新聞夜話)」 『삼천리』제3권 제9호, 1931.9.
- 「참변과 재만동포문제」 『동광』24, 1931.8.
- 「평양 사건 공판 제1일, 3명에겐 사형 구형, 강동 대성리에서 발생한 사실, 주목되는 25일 판결」 『동아일보』, 1931.8.20.
- 「호외의 호외」 『별건곤』제42호, 1931.
- 「중국인 20명 살상자 중예(終豫), 어릴 때부터 갖은 고생, 피 보고 눈뜬 악마성」 『동아일보』, 1931.12.19.
- 거북선, 「평지 풍파를 일으킨 만보산 사건의 배경」 『조선일보』 특파원 김이삼의 사죄 = 김이삼은 유혹에서 참살로 결과」 『신한민보』, 1931.8.20.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3,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56 - 중국인 습격 사건 재판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 금동(琴童), 1934. 12, 「유서 광풍에 춤추는 대동강의 악몽 - 3년 전 조·중인 사변의 회고」 『개벽』신간 2호.
- 김이삼, 「삼성보 동포 수난기」 『조선일보』, 1931.6.21.
- 박선영 역, 2009, 『중일문제의 진상』, 동북아연구재단.
- 연봉춘인, 1931.9, 「비판의 비관 - 선한인(鮮漢人)간(間) 불상사(不祥事)의 여음(餘音)에 관한 이삼(二三)의 소평(小評)」 『비판』5.
- 오기영, 1931.9, 「평양폭동사건 회고(수기)」 『동광』25.
- 오기영, 2002, 『사슬이 풀린 뒤』, 성균관대 출판부.
- 이무영, 1932.5, 「두 훈시」 『동광』제33호.
- 최서해, 1927.1, 「홍염」 『조선문단』.
- 홍양명, 「동포 구축문제에 대한 중국기관지의 논조 - 국민정부 기관지 『중앙일보』의 소위 진상보도와 곡해된 논조」 『조선일보』, 1931.7.3.
- 나가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1931.8, 「滿州に漂泊う朝鮮人」 『改造』.
- 나가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 1931.8, 「万宝山事件と鮮農」 『中央公論』.
- 伊藤永之介, 1931.10, 「万宝山」 『改造』.
- 리웨이잉(李輝英), 1933, 『만보산(萬寶山)』(上海 湖風書店).
- 하세가와 만찌로(長谷川萬次郎), 1931.9, 「민족적 대립과 만선사건 - 재만동포문제특집」 『동광』25.

2. 연구논문 및 저서

- 김재용 편, 2011,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 김인식, 2009, 「안재홍의 좌우의 개념 규정과 이념정향의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49.
- 김태웅, 2009, 「1920·30년대 한국인 대중의 화교 인식과 국내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의 내면세계」 『역사교육』112.
- 박영석, 1978, 『만보산 사건연구』, 아세아문화사.
- 민두기, 1998, 「만보산 사건과 한국언론의 대응-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 『동양사학연구』65.
- 손승희, 2007, 「지역너머의 만보산 사건(1931년)-사건을 둘러싼 실제적 외교행위 규명을 중심으로」 『인문연구』53.
- 손승희, 2007, 「만보산 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28.
- 손승희, 2009, 「1931년 식민지 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중국근현대사연구』41.
- 오오무라 마쓰오, 2009, 「이토 에이노스케의 「만보산」과 장혁주의 『개간』」 『‘만주국’과 동아시아문학』, 제5회 식민주의와 문학 학술회의 자료집.
- 이상경,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김재용 편, 2010, 『만보산 사건과 한국근대문학』, 역락.
- 이옥련, 2008,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 菊池一隆, 2007, 「萬寶山・朝鮮事件の 實態と 構造」 『愛知學院大學 人間文化研究所紀要』22.
- 李相瓊, 2010, 「一九三一年の「排華事件」と韓國文學」 『植民地文化研究』9.

■ Abstract ■

1931's Anti-Chinese Riots and Nationalist Discourse

Lee, Sang-Kyung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 series of anti-Chinese riots in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ist discourse. The riots were sparked by a dispute over an irrigation ditch between Chinese and Korean farmers at Wanpaoshan in 1931. From analyzing newspaper articles and essays of Oh Gi-young and Kim Dong-in, the following was confirmed.

Firstly, a clearer understanding can be achieved by separating the 1931's anti-Chinese riots in Korea from the Wanpaoshan incident in China. Secondly, *Chosun Ilbo*'s misreport, which led to the anti-Chinese riots, arose from competition for nationalist discourse between *Dong-a Ilbo* and *Chosun Ilbo*. Thirdly, the misreport was ultimately caused by the impatience resulting from fighting for socialism. Fourthly, the riots seemed to be recorded as an insignificant event by those who lived during that time. Despite providing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buse of nationalism, the riots were considered a shameful secret by Koreans. Japan, in order to avoid being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China, took efforts to censor related reports and deliberately neglected the issue.

Key words : 1931's anti-Chinese riots, Wanpaoshan incident, Oh Gi-young, Kim Dong-in, Nationalist discourse, "Red Mountain", Nakanisi-inosuke

